

프랑스어 단어 속에 담긴 문화연구*

곽 노 경
(경기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 고유의 문화가 담긴 '공유문화 적재어'들을 선별하여 그 단어 속에 숨겨진 문화 콘텐트들을 연구하고 이 단어들이 한국어에 차용되면서 새롭게 탄생한 문화 현상들을 탐구함으로써 프랑스와 한국 간의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별된 '공유문화 적재어'들을 프랑스 문화 내부적 관점과 상호문화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우선 프랑스 문화 내부적 관점에서 어휘문화적 접근으로 프랑스어 단어를 가운데 한국어에 차용된 단어들 중에서 의·식·주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공유문화 적재어'들을 선별하여 그 단어 속에 담긴 프랑스 고유의 문화를 사전적 의미, 문화적 현상, 숙어나 관용어 표현 속에 나타난 특별한 문화 현상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그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뛰어넘는 특별한 공시를 밝혀주었다. 나아가 상호문화적 접근으로 프랑스 문화와 한국 문화의 접촉으로 동일한 프랑스어 단어가 새로운 의미로 탄생하게 되는 과정들을 차용어의 변용 양상과 문화적 현상을 중심으로 탐구함으로써 두 문화 속에 작용하는 언어적·문화적 요소들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탐구할 수 있었다. 프랑스 '공유문화 적재어' 속에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어 개별 단어들에 대한 탐구가 프랑스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할뿐 아니라 이들 단어가 사용된 숙어나 관용어 표현들을 통해 개별 단어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 현상들이 담화 속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한국어로 차용된 프랑스어 단어들은 대부분 문화 간 교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경우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의미의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주제어 : 어휘문화론, 공유문화 적재어, 어휘문화적 접근, 상호문화적 접근, 차용어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4S1A5B5A07039678). 부족한 논문을 성심성의껏 심사해주신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I. 들어가며

전 세계 어느 언어나 동일하겠지만 프랑스어 단어는 표현하려는 다양한 생각들을 지시하기 위해 우연히 창작된 결과물이 아니다. 단어 속에는 세상에 대한 온갖 성찰과 인간의 모든 삶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생각을 표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눈다. 만일 한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작용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단어가 선사해주는 다양한 역사, 문화 및 이야기를 간과해버릴 수 있다. 프랑스어는 라틴어에 기원을 둔 로망스어에 속한 언어로서 골족이 사용하던 프랑크어와 뒤섞이면서 프랑스어로 발전하였고 여러 침략자나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다양한 외래어가 유입되는 과정을 겪으며 형성된 언어이다. 그래서 단어마다 그 속에 역사가 겹겹이 쌓여있다. 하지만 화자가 담화 속에서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어의 단면만이 드러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처럼 단어는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생생함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언어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 한 사회 속에서 단어는 언어를 구성하는 동시에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프랑스어 단어 속에는 프랑스의 과거와 함께 프랑스인들이 세상에 대한 비전으로 후대에 전수해주고자 하는 생각, 즉 문화가 담겨있다¹⁾. 몇 세기를 이어오며 사용된 단어의 다양한 활용을 탐구해보는다면 프랑스인의 사상, 관습, 현실에 대한 생각과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내부적으로 함께 담겨있고 언어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단어에 집중하였다. 프랑스어 단어들 가운데에는 한 사회가 겪은 문화의 흔적을 상대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 그 사회의 문화적 현실을 보여주는 특별한 단어들이 존재한다. 이를 ‘공유문화 적재어(mots à Charge Culturelle Partagée 이후 mots à C.C.P.)’²⁾라고 한다. 이러한 단어나 이 단어가 포함된 숙어나 관용어 표현들을 살펴보면 그 사회가 지닌 문화적

1) María Isabel González Rey, “Quels rapports entre grammaire des constructions et phraséologie en didactique des langues vivantes?”, *Cahiers de lexicologie: Revue internationale de lexicologie et lexicographie*, 2016, p.147.

2) 용어에 대한 정의 및 특징을 II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도록 할 것이다.

현상뿐 아니라 가치관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단어들을 의·식·주라는 항목별로 선별하여 프랑스 내부적 관점으로 이들 단어들이 지닌 언어적 특징, 문화적 현상 및 그 안에 담긴 역사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표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단어 뒤편에 숨겨진 문화적 흔적과 이로 인해 변화하는 의미적 다양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나아가 상호문화적 관점으로 한국어에 차용된 동일한 프랑스어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 변용 양상, 단어 속에 담긴 문화적 변화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프랑스어 ‘공유문화 적재어’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뿐 아니라 한국어에 차용된 프랑스어들의 차용과정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의 상호문화적 교류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의 기초 자료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II. 어휘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어휘문화론(lexicoculturologie)은 어휘문화 연구를 목표로 하며 어휘로 문화에, 문화로 어휘에 입문하도록 한다. 이 학문은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교육하던 교사들이 프랑스 문화에 낯선 외국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초에 언어-문화 교육학(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과 어휘문화 화용론(pragmatique lexicoculturelle)의 영향으로 새롭게 확립되었다.³⁾ 어휘문화론에서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를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도 어휘문화론의 관점에 기초하여 단어를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 어휘문화의 정의와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선 살펴볼 것이다.

1. 어휘문화의 정의 및 특징

어휘문화(lexiculture) 정의의 출발은 Galisson의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Galisson은 어휘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Marlène da Silva e Silva, “Le lexicoculturologie... en didactologie des langues- cultures”, *Synergies Portugal*, n°1, 2013, pp.69-89.

“어휘문화란 문화 자체에 대한 연구가 목표가 아닌 모든 담화의 단어 속에서, 단어에 의해 실현되고 변형된 문화이다.”⁴⁾

어휘문화 연구는 각 문화를 단어의 총체로 살펴볼 뿐 아니라 모국어 화자들이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들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한다. 상태(état)로서의 문화에서 행동(action)으로의 문화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적 요인들과 함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문화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자들을 돕는 것이다.⁵⁾ 이를 위해 어휘문화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기준을 따른다.

첫째, 언어 현상의 관찰 장소로 단어를 사용한다.

둘째, 언어(단어와 의미작용)와 문화(단어의 공유문화 적재(C.C.P.))를 동시에 연구한다.

셋째, 언어-문화 조합에 대한 사고를 넓혀주고 풍부히 해준다.

Galisson은 언어 교육을 위해 문화 교육과 언어 교육, 특히 단어 교육을 서로 분리시키지 않으면서 단어의 의미적 정의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지적문화(culture savante)와 단어가 대중문화 속에서 은연중에 드러내는 일반문화(culture courante)를 구분하였다.⁶⁾ Pruvost는 Galisson의 이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어휘문화란 모두가 공유하는 일반 문화로서 단어 안에 있는 의미론적 정의를 넘어서서, 예문 안에서 단어의 추가적인 사용으로 언어외적 정

4) «...la culture mobilisée et actualisée dans et par les mots de tous les discours dont le but n'est pas l'étude de la culture pour elle-même.» Robert Galisson, “Où il est question de lexiculture de cheval de troie, et d'impressionisme”,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n° 97,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1995, p.6.

5) Guillén Diaz, “Une exploration du concept «lexiculture» au sein de la Didactique des Langues-Cultures”, *Didactica*, v 15, 2003, pp.115-119.
<http://revistas.ucm.es/index.php/DIDA/article/viewFile/DIDA0303110105A/19413>
참조

6) Robert Galisson, “Enseignement et apprentissage des langues et des cultures «évolution» ou «révolution» pour demain ?”,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n° 79, 1990, p.31.

보가 포함될 때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⁷⁾ 이처럼 어휘문화라는 용어는 어휘와 문화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한 단어를 통해서 문화에 접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개념이 생겨났다. 따라서 어휘와 문화라는 두 형태의 합성어인 어휘문화는 언어적이며 사회적이라는 두 가지 공시(connotation)를 드러낸다. 이런 공시들은 일반인들에게 통용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된 공리체계(axiomatique)로서 변화하지 않는 고정적인 관계를 이끄는 순수한 형태라기보다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시니피앙(signifiant)’들이다.⁸⁾ 어휘문화는 두 가지 공시를 드러내기 때문에 어휘문화의 실재 또한 아래 표와 같이 언어적 실재와 사회적 실재라는 두 범위에서 취해진다.

언어적 실재 (Existence linguistique)	사회적 실재 (Existence soci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définition)로 이해되는 추상적 사고, 정신적 혹은 일반적 표시, 일종의 속성들을 지칭하는 분류. • 표현(terme)을 활용하며 시니피앙과 명칭(dénomination)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는 그대로의 묘사적 지식인 시니피에(signifié)에 접근하도록 한다. • 언어적 실재를 증명하는 기능.

언어적 실재에 해당하는 어휘는 한 언어에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된 사전에 나타난 단어의 총체이다. 하지만 단어들은 사회적 실재에서 화용론적인 범위와 부합되는 함축적인 가치를 지닌다. 상황에 맞게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드러나는 이 가치는 문화적 정체성(identification)와 소속(appartenance)의 표지로 작용한다. 이는 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기능을 하는 지식으로서 시니피에에 첨가된 2차적 가치이다.⁹⁾ 그러나 이런 가치는 상호문화 상황에서 모국어 화자가 아닌 각

7) Jean Pruvost, “Quelques concepts lexicographiques opératoires à promouvoir au seuil du XXIe siècle”,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n° 137, 2005, pp. 8-9.

8) Yves Gentilhomme, “À quoi servent les concepts en Didactique des langues-cultures”,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n° 105, 1997, p.37.

9) Galisson은 이러한 가치를 Référé(지시대상)와 Para-Référé(준 지시대상)로 분류하였다(별첨(1)을 참조할 것).

개인들이 상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때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지식, 즉 조작기능지식(*connaissance opérative*)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Galisson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여 ‘공유문화 적재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¹⁰⁾ 이는 기호의 시니피에에 첨가된 문화적 가치이며 각 언어에서 특별한 사용으로 단어에 첨가된 가치를 지칭하는 어휘와 문화의 상호동체성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단어들은 동일한 시니피에를 지니더라도 다양한 ‘공유문화 적재어’를 나타낼 수 있다.

2. 공유문화 적재어의 정의 및 특징

Galisson은 어휘문화 분야 중에서 프랑스 고유의 문화를 담당하는 단어들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공유문화 적재어’들이 전달하는 전반적인 문화를 지칭하는 분야를 1987년 개척하였다. 이 분야는 ‘공유문화 적재어’들 속에 담긴 온갖 의미와 그 잠재성을 발굴해 밝혀주고 해석하여 모국어 사용자들과 언어-문화 학습자들 간의 상호이해를 도와줌으로써 언어적 의사소통 교육/학습의 활용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였다. Galisson은 ‘공유문화 적재어’라는 용어를 ‘다른 어휘로 인해, 다른 문화에, 다르게 접근하기 위한 어휘문화적 화용론’이라고 했다. 적재(*charge*)는 보충적 생각, 단어 내용에 첨가된 사항이라는 의미이며, 문화적(*culturelle*)이라는 의미는 적재를 언어사전이 다루는 외시를 넘어서는 곳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유(*partagée*)란 모든 문화가 공동체의 결과물이라는 문화적 정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문화 적재어를 통한 교육이란 배우는 언어의 특별한 단어를 통해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다.¹¹⁾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공유문화 적재어’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0) Robert Galisson, “Accéder à la culture partagée par l’entremises des mots à C.C.P”,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n°67, 1987, p131.

11) Robert Galisson, “La pragmatique lexicoculturelle pour accéder autrement, à une autre culture par un autre lexique”,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n° 116, 1999, p.483.

첫째, 한 사회의 모국어 화자 대다수가 이해하는 하나의 보충적 가치이다.
둘째, Signe의 두 번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재인식적(reconnaissance)이다.
셋째, 상징적인 특징을 지니며 활용을 통해 단어에 덧붙여지는 가치이다.

Galisson은 공유문화(C.C.P.)의 형성과정을 도식으로 보여주며 기의(Sé)와 공유문화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설명해주었다.¹²⁾

기의(Sé)	공유문화 적재(C.C.P.)
의미론 영역	화용론 영역과 문화인류학 영역
의미가 명시적임	의미가 함축적임
Signe가 지시대상과 유지하는 관계에 의한 결과	Signe가 언어사용자와 유지하는 관계에 의한 결과
지시대상에 의해 결정된 관점의 객관성이 중요	화자집단이 세상을 보는 관점의 주관성이 중요
화자집단의 부분적 상실 + 지시대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로 형성	화자집단의 전적인 개입 + 지시대상이나 준 지시대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으로 형성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Sé에 비해 C.C.P.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C.C.P.는 Sé와 어느 정도 자율적인 연관성을 보이며 화용적인 영역과 더불어 문화인류학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Signe가 언어사용자와 유지하는 관계의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Sé일지라도 다양한 C.C.P.가 가능하다. C.C.P.는 언어·문화적으로 동일한 공동체에 의해 공시되기 때문에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다. 비록 의미가 함축적이기는 하지만 ‘공유문화 적재어’들은 모국어 화자들이 폭넓게 알고 있는 단어라서 가장 일반적이고 이용하기 편리한 단어라는 특징이 있다.

일반 모국어 화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공유문화 적재어’로 사용되는 경우의 예를 보도록 하자.

12) Galisson이 보여준 C.C.P. 도식은 별첨(1)에 첨가하였다(김은정, 2012:25 재인용).

ex 1) J'ai acheté du poisson.

ex 2) Vendredi, c'est le jour du poisson.

일반적으로 'poisson'이라는 단어는 1번의 예문처럼 '물고기, 생선'등을 나타내는데 2번 예문처럼 새로운 의미로 사용될 경우 외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생소한 문장으로 이해될 것이다. 이 경우 'poisson'은 le jour와 함께 '육식을 금하는 날'이라는 문화적 함축성을 드러낸다. 즉 단어에 첨가된 가톨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 속에 담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사전적인 의미로 '육식 절제'라는 정의를 학습하더라도 왜 프랑스어 단어에서 'poisson'이 들어가는지, 기독교 역사에 대한 지식과 그 안에 담긴 가치까지 폭넓게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poisson'이라는 단어 하나가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문화와 역사까지 넘나들도록 하므로 '공유문화 적재어'로 사용된 경우 'poisson'은 문화적 정체성과 소속의 표지로 작용한다. '공유문화 적재어'는 일반적인 단어 속에 숨겨진 새로운 문화를 일깨워주고 표면으로 드러내어 그 속에 담겨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를 선사해주는 장점이 있다.

Ⅲ. 프랑스어 내부적 관점

프랑스의 의·식·주와 연관된 '공유문화 적재어'들 가운데 한국어에도 차용된 단어들을 선별하여 어휘문화적 접근 방식으로 분석해보았다. 한국어에 도입된 프랑스어 차용어들을 연구한 선행 논문들 가운데 전재연의 어휘 목록 자료를 기준으로 프랑스 문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담겨있는 '공유문화 적재어'들을 의·식·주 별로 분류하였다.¹³⁾ 또한 <표준국어대사전>과 <새국어사전>에 수록된 795개의 차용어들 중에서 의(19개)·식(26개)·주(12개)와 관련된 차용어들을 목록으로 작성하였다.¹⁴⁾ 이 가운데 한국인들도 평

13) 전재연, 「한국어에 차용된 프랑스어 어휘의 분류와 사용 양상에 대하여」, 『프랑스학연구』 제67집, 2014, 153-197쪽.

14) 항목별 단어 리스트는 별첨(2)에 첨부하였다.

상시에 일상에서 접할 수 있으면서 프랑스 고유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담겨 있는 단어들을 항목별로 7개 씩 선별하여 프랑스 내에서 밝혀주는 문화콘텐츠와 한국어로 차용되어 새롭게 탄생한 문화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에 차용된 프랑스어 ‘공유문화 적재어’들이 영역별로 다양하지 않고 이들 단어들이 차용된 이유는 이미 프랑스 고유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제와 모든 어휘에는 그 나라 특유의 문화가 반영된다¹⁵⁾ 사실에 근거하여 선별된 단어들의 내면을 살펴보는데 집중했다. 나아가 선별된 단어들이 프랑스어 속어나 관용어 속에서 사용될 경우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들과 그 안에 담긴 역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여 표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단어 뒤편에 숨겨진 문화적 흔적과 이로 인해 변화하는 의미적 다양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항목별로 선별된 프랑스어 단어들은 프랑스 사회 내에서는 다른 단어들과 비교해 실제적으로 풍부한 문화적 자료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한국어로 차용되었다는 점에서 프랑스 문화와 연관된 특별한 부분들이 있음을 감안하여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두 문화에 대한 자료와 차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여겨 선택하였다. 하지만 ‘공유문화 적재어’의 서술 도구 매뉴얼을 세우는 일이 간단하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공유문화 적재어’의 분류 및 서술의 출발점으로 기본적인 사전의 분류를 기초로 사용하였다. Galisson은 ‘공유문화 적재어’ 사전은 일반 사전과 비교되어서는 안 되며 C.C.P.가 담긴 다양한 품사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¹⁶⁾

1. 의복과 관련된 단어

의복과 관련된 프랑스어 단어들 가운데 한국어에 차용되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담긴 단어로 7개(béret, corsage, jupon, lingerie, manteau, pantalon,

15) Marie-Thérèse Claes, “La dimension interculturelle dans l’enseignement du français langue de spécialité”, *Dialogues et cultures*, nr. 47, 2003, p.2. Source électronique : http://francparler-oif.org/FP/articles/interculturel_claes.htm

16) Robert Galisson, op.cit, 198, p.143.

tricot)를 선별하였다. 이 단어들을 알파벳순으로 프랑스 내부에서 제시하는 정보들을 수집하여 분류하였다. 사전적 정의 자료는 Dictionnaires de français Larousse를 참조하였다.¹⁷⁾

1) béret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béret** : (n.m.)

Coiffure souple, sans bords, à la calotte ronde et plate, resserrée à sa base sur une lisière, originaire du Pays basque.

- 문화적 현상

béret는 프랑스 서남부의 가스코뉴 지방의 berret라는 명사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고대 오크어인 be(r)ret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béret는 주로 그 지역 양치기들이 추위나 비를 피하기 위해 착용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프랑스 사회의 특별한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 색채로 공동체를 서로 구별해주던 béret는 세계 2차 대전 중에 레지스탕스들이 착용하면서 그들을 상징하는 모자가 되었다가 이후 예술가들을 통해 자유와 저항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현대로 들어오면서 캐리커처 예술가들이 béret를 프랑스 상징의 전형적인 요소로 그리면서 외국인들에게 이 모자는 프랑스풍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군인을 상징하는 모자가 되어 국가별로 모양, 색채, 착용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속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 현상

béret가 프랑스를 상징하는 요소로 캐리커처에 자주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표현이나 직접적인 관용어 표현은 많지 않다. «béret vert»라는 표현만이 현재 프랑스 군인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 유래는 1948년 외인부대 내의 낙하산병들의 외국 출정에서 초록 béret가 보급된 것을 계기로 이후 프랑스 군 전 체제로 퍼져나갔고 1957년 공식적인 모자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7) <http://www.larousse.fr/dictionnaires/francais> 참조함.

2) corsage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corsage** : (n.m.)

a. Vêtement féminin qui habille le buste

b. Haut d'une robe

c. Corps, silhouette d'un cerf

- 문화적 현상

corsage는 프랑스 문화에서 두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첫째는 사전의 a.번 정의처럼 여성들의 허리를 가늘게 해주고 가슴을 지탱하도록 하는 코르셋으로 변형되어 패션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었다. 코르셋은 16세기부터 선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루이 14세 때에는 코르셋의 뼈대를 만드는 일이 어려워서 남성들만이 독점적으로 제작하는 바람에 일명 «corps de fer»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혁명시기에는 코르셋이 잠시 자취를 감추었다가 이후 가슴을 돋보이려는 여성들의 필요로 다시 등장했다. 1870년대에는 코르셋의 길이가 허리까지 내려오고 색채가 들어간 코르셋이 등장했다. 20세기 벨 에포크 시대가 오자 엉덩이가 볼록해지면서 S라인이 등장하며 다양한 코르셋이 선을 보였다. 하지만 여성들이 그들의 신체를 이러한 속박에서 해방시키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여성들은 코르셋 착용대신 자연스러운 허리라인을 드러내게 되었다.

둘째는 드레스에 장식용으로 꽃는 용어로 corsage가 사용되었다. 이는 가슴 중앙에 핀으로 꽃 장식을 달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장식의 기원은 그리스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19세기 프랑스에서 특별한 날에 유행한 분위기와 향기를 더해주려고 옷에 꽃을 꽂거나 장식을 함으로써 corsage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여성들이 corsage에 꽂던 꽃 장식이 차츰 여성들의 의상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으로 발달하면서 꽃 장식 자체를 corsage라 지칭하게 되었다.

- 숙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 현상

corsage가 사용된 관용어나 숙어는 다양하지 않다. 이들 표현에서 corsage는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Ni cul ni corsage»

는 ‘특별한 형태가 없어 결과적으로 흥미가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avoir du corsage»라는 속어는 19세기 텍스타일에서 옷감의 질이나 항구성에 대한 언급으로 사용되어 ‘질이 좋다’의 의미로 통용되었다. 이들 표현을 통해 보면 corsage는 ‘특별함’ 혹은 ‘고급’이라는 이미지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3) jupon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jupon** : (n.m.)

a. Sous-vêtement féminin, maintenu à la taille, qui soutient l'ampleur d'une jupe, d'une robe ou atténue l'effet de transparence.

b. (Familier) Fille ou femme

- 문화적 현상

jupon은 여성들의 의상 밑에 감춰진 속옷이다. 여성들은 치마나 드레스 밑에 볼륨감을 주고 실루엣을 살려주려고 jupon을 착용했다. 속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어린 눈길을 의식해 우아함을 추구하며 레이스 장식이나 실크로 제작되었다. 승마 문화가 발달한 15-16세기에는 jupon이 잠시 인기를 상실했지만 18세기에 부풀린 치마의 유행으로 다시 인기를 얻었다. 이후 jupon은 드레스의 앞부분이 개방되면서 속옷의 이미지를 벗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다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새롭게 패션계의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어 현재는 프랑스 사회에서 속옷의 범위를 넘어 레이스를 겉으로 드러내는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 속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 현상

jupon과 연관된 속어나 표현에는 «coureur de jupons»이 있다. 이 표현은 단기간에 여성을 여럿 사귀는 ‘바람둥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치마를 착용했고 속에 jupon을 입었다. 그래서 jupon은 여성을 상징했는데 이를 착용한 여성들을 쫓아간다는 의미에서 ‘바람둥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탄생했다. 그리고 «s'accrocher aux (ne pas quitter les) jupons de sa mère»는 ‘엄마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엄마 치마폭에 싸여 있다’로 해석될 수 있다. 두 관용어 모두 jupon이 여성을 상징하

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4) lingerie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lingerie** : (n.f.)

a. Fabrication et commerce du linge.

b. Lieu où l'on entretient et où l'on range le linge dans une communauté ou une maison particulière importante.

c. Ensemble des sous-vêtements et des vêtements de nuit féminins.

- 문화적 현상

여성의 곡선을 드러내는 lingerie는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보여준다. 고대에는 여성들이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양모나 가죽을 사용했다. 중세에는 옷 아래에 간단한 셔츠를 lingerie로 착용하다가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며 미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되었다. 레이스의 시대가 열리는 17세기에는 lingerie가 코르셋의 인기와 함께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다 세계대전의 여파로 여성성보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50-60년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활약으로 lingerie는 차츰 브래지어를 연상시키며 여성성을 드러내는 의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대로 올수록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는 섹시한 lingerie가 선보이고 있다.

- 속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 현상

«Côté lingerie»는 옷장 안에서 옷걸이가 있는 코너와 반대로 속옷을 정리해두는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1.5. manteau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manteau** : (n.m.)

a. Vêtement à manches longues, boutonné devant, que l'on porte à l'extérieur pour se protéger du froid.

b. Tout ce qui sert à cacher

- c. Construction qui délimite le foyer d'une cheminée et fait saillie dans la pièce.
- d. Ensemble du plumage des oiseaux, plus spécialement plumage des parties supérieures Géologie
- e. Partie d'une planète tellurique, en particulier de la Terre, intermédiaire entre la croûte et le noyau.
- f. Ornement extérieur consistant en une draperie symétrique, toujours doublée d'hermine et retombant autour de l'écu.
- g. Autrefois, vêtement très ample, à manches, qui servait de capote aux troupes montées.
- h. Rôle de personnage grave et âgé.
- i. Chez les mollusques, repli de peau qui recouvre la masse viscérale et dont la face externe secrète souvent une coquille qui n'y reste pas adhérente.

- 문화적 현상

manteau는 몸을 보호한다는 의미 이외에 사회적인 신분을 대변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그리스에서 여러 신들의 조각상에서 볼 수 있는 manteau는 주로 철학자들이 착용했다. 프랑스에서 모피로 제작된 manteau는 상류층 사람들만 착용했고 뒤쪽을 땅에 끌릴 정도로 길게 늘어뜨려 고귀한 신분임을 나타냈다. 또한 manteau는 오랫동안 기사도의 상징이기도 했다. 왕은 영광스러운 축제 때 왕궁 뜰에서 새로운 기사에게 manteau를 묶어주며 존경을 표했다. 하지만 17-19세기에 manteau가 여러 팀에 수여되어 신의를 잃어가면서 차츰 형태도 변하기 시작했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급기야 외투를 지칭하는 의미로 변화되어갔다.

- 속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 현상

manteau는 사전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의상, 동물, 연극, 지질, 비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developper de son manteau»라는 표현은 ‘체념하다’ 혹은 ‘어려움 속에서 운명을 담담히 기다리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vendre sous le manteau»는 ‘은밀하게 거래하다’라는 뜻으로

관용어 속에서 manteau 는 대부분 무엇인가를 감추는 은유로 사용되었다. «se faire déchirer le manteau»는 라틴어에서 온 표현인데 주인이 머물러 있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외투를 잡는 것을 의미한다. 옛 문헌에는 manteau가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S'il fait beau, prends ton manteau; s'il pleut, prends-le si tu veux.’라는 문장에서 manteau는 단순한 의미의 외투가 아니라 화자가 말한 충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은유로 비유되고 있다.

6) pantalon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pantalon** : (n.m.)

1. Culotte à jambes longues descendant jusqu'à la cheville.
2. Morceau de décor de théâtre placé derrière une porte ou une fenêtre.

- 문화적 현상

단어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pantalon이 ‘권위’를 상징한다는 내용은 기본적인 정의 항목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pantalon은 베네치아에서 비롯되어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던 평민들이 착용하던 의상으로서, pantalon이라는 ‘바지’는 연극을 통해 프랑스로 유입되어 남성들이 착용하는 하의를 총칭하는 단어로 자리 잡고 프랑스 사회에서 다양한 상징성을 드러내며 의미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pantalon은 기본적인 의미 외에 프랑스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다양한 상징성을 담고 있다. pantalon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문화적 상징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보아야한다. 우선 남성의 관점에서 보면 pantalon은 귀족과 평민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며 정치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반면 여성의 관점에서는 훨씬 다양한 상징성을 보인다. 1800년 프랑스에서 파리 경찰청이 특별한 의학적 이유 없이 여성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 한 이후 2013년 2월 4일 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pantalon은 여성들에게 제한적으로

18) Culotte는 귀족들이 착용하던 의상으로 sans-culotte계급과 대조를 이루는 신분을 상징한 반면 pantalon은 노동자들이 착용하던 천한 의상으로 시민들의 웃인 동시에 시민권을 상징한다(곽노경, 2014, 192-197쪽).

금지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pantalon은 성적 경계를 의미하고, 자유와 평등을 상징하고,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로 상승하기 위한 권위를 상징하고, 나아가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정치와 연관되면서 실제적인 권력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처럼 pantalon은 프랑스에서 옷장 안에 걸려있는 의복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정치적·사회적·성적으로 다양한 상징성과 결부되었다.¹⁹⁾

- 속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pantalon과 연관된 표현은 관용어 표현으로 «porter le pantalon»과 «baisser son pantalon»이 대표적이다. 전자의 표현은 주로 «porter la culotte»로 사용되지만 두 표현 모두 ‘힘, 권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감히 착용조차 할 수 없었던 pantalon은 «porter le pantalon»이라는 표현의 탄생과 더불어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선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18세기 말에 등장한 이 표현은 당시 가정에서 남편이 주요한 가정사를 처리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권위를 지닌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baisser son pantalon»은 허벅지를 드러내는 행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항복하고 복종하며 나아가 자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표현은 ‘복종하다, 혹은 자백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힘과 연관된 상징성을 드러낸다.

7) tricot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tricot** : (n.m.)

- a. Étoffe à mailles tricotées.
- b. Article vestimentaire fait avec cette étoffe.
- c. Vêtement de matelot en étoffe tricotée, à rayures horizontales blanches et bleues, et qui se porte sous la chemise.
- d. Action de tricoter ; ouvrage ainsi réalisé.

19) Christine Bard, *Une histoire politique du pantalon*, Paris, Le Seuil, 2010, pp.18-19. 광노경, 2014, 187쪽 재인용.

- 문화적 현상

tricot의 기원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4-5세기에 뼈로 만든 코바늘로 양말을 짰다고 전해지고 있다. 12-13세기에 귀족 부인들이 뜨개질로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tricot는 전성기를 이루었다. 19세기에는 예술과 결합하여 패션에서도 뜨개질이 등장했다. 이후 사회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 속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tricot de corps, de peau»는 몸에 달라붙는 수영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tricot rayé»는 선원이 셔츠 아래에 입는 백색과 청색의 줄무늬 속옷을 의미한다. 뜨개질이 성행하던 1800년대에는 ‘싸우다’의 의미로 «prendre un tricot, donner à *qn* du tricot, menacer à *qn* de corps de tricot»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현대로 오면서 뜨개질이 대중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취미나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축소되면서 친근한 가족적 표현이었던 이 속어들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음식과 관련된 단어

음식과 관련된 프랑스어 단어들 가운데 한국어에 차용되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담긴 단어로 7개의 단어 (baguette, café au lait, canapé, champagne, gratin, macaron, tarte)를 선별하였다. 이 단어들을 알파벳순으로 프랑스 내부에서 제시하는 정보들을 수집하여 분류해보았다.

1) baguette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baguette** : (n.m.)

1. Petit bâton mince, flexible ou non.
2. Chacun des deux bâtonnets de bois, de plastique, d'ivoire, etc, qui tiennent lieu de couvert dans les pays d'Extrême-Orient.
3. Pain d'environ 300g, de forme très allongée.

- 문화적 현상

baguette는 ‘막대기’를 뜻하는 라틴어 baculum에서 비롯되어 이탈리아어인 bacchio로, 다시 bacchetta로 변형되었다. 프랑스어 baguette는 16세기 초반에 등장했다. 당시에는 군대의 장교들이 지휘할 때 사용하던 작은 막대였다. 파리지역들이 가늘고 긴 빵을 baguette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였다. 바게트는 기독교 국가의 영적 상징인 빵의 일종으로 포도주와 로크포르 치즈와 함께 프랑스를 상징하는 음식이다. 바게트를 포함한 빵은 20세기 초까지 프랑스인들의 주식을 이루며 역사의 중심을 이루었다. 성직자나 귀족이 주로 먹던 흰 빵은 부요를 상징하였고 가난을 상징하는 검은 빵은 서민들의 주식량이었다. 이처럼 빵은 신분을 표시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나라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표시이기도 했다. ‘공’을 뜻하는 프랑스어 단어 boul에서 공모양의 빵을 만드는 사람을 boulanger라 부르며 제빵사라는 단어가 생겨났듯이 프랑스에서 빵은 음식문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담당한다. 둘째로, 밥벌이 재료이다. 1850년부터 빵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빵 값은 부족했다. 19세기말에 프랑스인들은 각자 하루에 900g의 빵을 소비했다. 인민전선시기까지 빵은 사회적 요구의 1순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인 대부분의 정신 속에서 삶을 상징했다. 셋째로, 맛을 대변했다. 찬란했던 30년(1945-1975)이 지닌 이후로 프랑스인의 식습관은 놀랍게 변화하였다. 독특한 맛을 지니지 않은 제품들에 길들여지며 빵에 대한 취향을 잃어갔다. 요즘 프랑스인들은 매일 각자 150g 이상의 빵을 소비한다. 대신 고급스러운 맛을 새롭게 추구한다. 넷째, 빵은 여러 분야에서 프랑스 문화를 대변한다. 빵과 관련된 수많은 책뿐 아니라 그림, 사진, 캐리커처 등, 빵은 다방면으로 프랑스 문화를 드러낸다. 특히 빵과 관련된 관용어들이 많은 것을 보면 빵이 프랑스인들의 문화 속에 얼마나 깊이 관여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 숙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Baguette와 연관된 프랑스어 관용어는 다양하지 않지만 바게트를 포함한 pain과 연관된 표현은 «avoir encore du pain sur la planche», «pour une bouchée de pain», «ça ne mange pas de pain»등 매우 다양하다. 엑스프레시오의 설명을 보면 pain과 연관된 관용어 표현도 세월의 변화와 함께 의미가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들 표현 가운데 «avoir encore du pain sur la planche»에 대한 의미 변화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세 가지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20세기 이전에는 이 표현이 미래를 위해 능력을 지닌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당시에는 빵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저장 선반에 둥근 빵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빵을 일종의 능력과 비유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이 표현의 의미가 변화하는데 차츰 빵을 제빵사들이 만들면서 제빵사가 빵모양으로 반죽을 만든 후 오븐에 넣기 전에 재료판 위에 올려놓은 밀가루 반죽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할 일이 많음을 상상할 수 있다. 셋째는 Duneton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불량배들이 사용한 은어인 ‘la planche au pain’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la planche au pain’은 불량배들 사이에서 법정을 지칭하는 은어인데 이 표현과 ‘manger le pain du roi’라는 왕정시대에 감옥에 있거나 갇리선에 있다는 의미를 지닌 두 표현이 결합되어 지금의 관용어 표현이 나왔다는 주장이다.²⁰⁾

2) café au lait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café au lait** : (n.m.)

café noir additionné de lait

- 문화적 현상

café는 17세기 프랑스에 등장했다. 이후 café는 유럽 사회의 음료 문화를 변형시켰다. 프랑스에서 커피의 역할은 특별하다. café는 쓰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1685년 그르노블의 왕의인 Monin이 쓴 맛을 완화하기 위해 꿀과 우유를 섞어 « lait cafeté », 즉 커피가 섞인 우유를 선보이며 위의 자극을 줄이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병자들의 체력을 보완했다. 이후 café au lait는 프랑스인의 전형적인 아침식사 메뉴로 자리를 잡았다. 포도주를 주 음료로 섭취하던 프랑스인들에게 café au lait의 출현은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는 혁명과도 같았다.

20) 박도경, 「프랑스어 관용어 표현 속에 담긴 언어·문화 연구 및 수업에서의 활용 방안」, 『프랑스어문교육』, 제51집, 2015, 168쪽.

- 속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현대로 들어오면서 Larousse 사전에는 정의가 첨가되지 않았지만 Wiktionnaire에서 확장된 의미로 café au lait의 색처럼 혼합된 색이라는 의미로 흑백 혼혈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단 색을 나타낼 때에는 café-au-lait로 구별을 해준다. café au lait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fort de café»라는 표현은 café au lait를 마시는 사람들이 커피가 너무 많거나 쓴 맛이 강할 때 ‘c'est (trop, un peu) fort !’라고 하던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기원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표현은 ‘지나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19세기에 들어서는 café 대신 다른 음료를 지칭하는 단어(chicorée, moka)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3) canapé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canapé : (n.m.)

- a. Long siège à dossier et accotoirs, pour plusieurs personnes.
- b. Petite tranche de pain, nature ou grillée, garnie de menus apprêts.
- c. Tranche de pain frite, tartinée des éléments internes d'un gibier, sur laquelle on présente celui-ci.

- 문화적 현상

어원적으로 canapé는 의자를 지칭하던 고대 프랑스어 conopé(침대의 커튼)에서 비롯되어 왜곡된 표현으로 18세기 프랑스에 등장했다. 고대 프랑스어에서는 ‘모기장이 쳐진 침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canapé는 편안하고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어 대화를 나누기 편한 가구이며 시대별로 모양이 다양하게 변화하였지만 대부분 모임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거실에 놓인 이 가구를 중심으로 간단한 apéritif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로 인해 canapé는 의자의 의미가 아닌 간단한 전식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 속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le canapé des doctrinaire, la faction du canapé» 이 표현은 프랑스 역사

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다. 왕정복고시대에 순리론자(자유주의자와 왕당파 사이의 중도적인 정치가)들에게 주어진 명칭인데 그들이 인원이 적어서 canapé에 앉아 자신들의 주장을 견고히 하는 이론들을 만들면서 이러한 표현이 생겨났다.

현대에는 «patate de canapé»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canapé에 축 늘어져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프랑스에서는 음식을 지칭하는 용어보다 가구를 지칭하는 의미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champagne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champagne** : (n.m.)

Vin blanc mousseux produit exclusivement en Champagne.

- 문화적 현상

프랑스는 대표적인 포도주 생산국이다. 그중에서도 champagne는 축제나 즐거운 행사가 있을 때 거품을 내며 터트려 축하로 마시는 포도주이다. 포도주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에도 존재했지만 기포 발생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돔 페리뇽(Dom Perignon)이 오비에(Hautvillers) 수도원에서 포도주의 기포를 제거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샴페인을 최초로 발견하여 개발했다. 당시 병 속에서 발생한 기포 때문에 병이 폭발하는 일이 빈번했다. 페리뇽은 이를 연구하다가 샴페인의 매력에 빠져 이를 생산하는 양조 기술을 개발했다. 이후 영국에서 상파뉴 지역의 포도주 기포에 관심을 갖고 폭발을 막을 수 있는 병을 나무 화덕에 구워 제작하여 샴페인을 병에 담고 코르크마개로 막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1493년 프랑스 Châlons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vin de Champagne»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샴페인은 호화스러움과 프랑스적인 삶을 대표하는 술로 자리를 잡으며 자비와 우아함과 신비함을 드러내는 음료의 상징이 되었다.

- 숙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sabler/sabrer le champagne»는 기쁜 일을 축하하기 위해 ‘샴페인을 터트

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 기원이 ‘sabler’인지 ‘sabrer le champagne’ 인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 분분하다. 아마도 군대에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칼로 샴페인 병의 입구를 쳐서 샴페인을 열었던 전통에서 sabrer라는 동사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와 이러한 표현이 병목을 칼로 치면서 부상과 술의 낭비라는 두 가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18세기에 음료를 ‘단번에 들이키다’는 뜻으로 ‘sabler’ 동사가 사용된 것을 적용해 sabler로 대체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champagne는 관용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축제와 연관되어 있다.

5) gratin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gratin** : (n.m.)

- a. réparation recouverte d'une croûte qui se forme à sa surface sous l'action de la chaleur, souvent composée de fromage râpé, mélangé ou non avec de la mie de pain ou de la chapelure.
- b. Croûte qui se forme à la surface de cette préparation.
- c. Particules d'aliments qui restent attachées au fond du plat, en particulier quand elles sont croustillantes, à base de fromage, etc.
- d. Personnes les plus distinguées, les plus choisies, les plus élégantes d'une société, d'un milieu.
- e. Mélange de colle, de phosphore et d'eau, utilisé après séchage, pour constituer les frottoirs pour allumettes.

- 문화적 현상

gratin은 kratton(굽으면서 문지르다)이라는 게르만어에서 gratter라는 동사로 변화되어 그릇 바닥에 남은 찌꺼기의 의미로 탄생했다. gratin은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Dauphiné 지역과 연관이 있다. 이 음식은 1565년 이탈리아에서 선을 보인 후 스위스로 넘어갔다. 이로 인해 16-17세기 사이에 감자를 주 재료로 하는 도피네 지역에 gratin이 도입되어 선을 보였다. 프랑스 혁명의 시발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날인 «journée des tuiles»에 총사령관인 클레르망-토네르 공작이 대량학살을 피하기 위해 식민지군과 대치하고 있

는 부대를 철수시키면서 7월 12일에 Gap의 지방장군들에게 식사로 gratin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gratin dauphinois라는 용어가 최초로 기록되었다.

- 속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faire gratin»은 ‘상류층 사람들과 비슷해지다, 멋을 내다’의 의미로 쓰인다. 이는 gratin이라는 단어가, gratter-gratin-au gratin (조리법을 의미)의 변형을 거치며 요리법으로 의미가 국한되다가 19세기 초부터는 사교계의 엘리트층을 의미하는 단어로 변화되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됨을 보여준다. 사전 정의의 d. 항목에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정의와 사회적인 현상들이 맞물려 새로운 형태의 속어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그래서 ‘gratin’이 형용사로 사용되어, 예를 들어 ‘On est gratin’이라고 하면, 이 문장의 의미는 ‘엘리트 세계의 일원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6) macaron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macaron** : (n.m.)

- a. Petit gâteau rond moelleux, à base de pâte d'amandes, de blanc d'œufs et de sucre, qui peut être parfumé à la vanille, au café ou au chocolat.
- b. Rosette d'une décoration ou insigne distinctif quelconque, de forme ronde, portés à la boutonnière.
- c. Vignette, insigne distinctifs de certaines professions, en particulier à caractère officiel ou administratif, que l'on appose sur le pare-brise d'une voiture.
- d. Vignette autocollante à caractère publicitaire, que l'on colle sur une surface (vitre, voiture).
- e. natte de cheveux roulée sur l'oreille.
- f. Ornement rond constitué d'apprêts divers.

- 문화적 현상

macaron의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그리스어 ‘makaria’에서 시작되어 이후 이탈리아로 넘어가 ‘반죽을 치다, 두드리다’라

는 뜻의 동사 ‘macare’로, 다시 파생되어 ‘maccellone’ 혹은 ‘macaroni’로 변화되었다는 주장이다. 1650년에 제작된 프랑스어 원본 사전(Les Origines de la Langue Française)에서는 ‘치즈로 뒤덮인 파스타 요리’를 지칭하지만, 이 단어들은 과자나 밀가루로 만든 음식에도 쓰였다. 1675년에 제작된 프랑스어-영어 사전에는 현대와 비슷한 뜻으로 표현되어 있다.²¹⁾ 또 다른 주장은 ‘섞다’, ‘갈다’, 혹은 ‘주무르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단어인 ‘maccare’, 또는 ‘amaccare’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아몬드를 갈아서 마카롱에 들어가는 아몬드 페이스트를 만든 것을 본떠 만든 명칭이다.

macaron은 8세기경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수도원 혹은 프랑스 코르메리(Cormery) 근처의 수도원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1533년 이탈리아의 카트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édici)가 프랑스의 앙리 2세와 결혼하면서 프랑스에 전파했다고 전해진다. macaron은 17세기 중반부터 조리법이 소개되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이후 여러 요리책에 등장했다. macaron이라는 단어는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작가였던 프랑수아 라블레가 1558년에 최초로 기록을 남겼다.²²⁾ macaron은 그 모양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다양한 분야로 파생되었다. 머리의 모양이나 혼장 심지어 핸들이라는 의미로 확장되면서 둥근 모양을 대신하는 은유로 사용되었다.

- 속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manier le macaron»은 macaron이 둥근 핸들의 의미로 사용되어 ‘핸들을 조작하다’로 해석된다. 이처럼 macaron은 단순한 디저트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중들에게 다양한 색과 둥근 모양으로 새로운 영역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 그 범위가 건축, 미용, 장식 심지어 기술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

21) “...little Fritter-like Buns, or thick Losenges, compounded of Sugar, Almonds, Rosewater, and Musk, pounded together, and baked with gentle fire.”
(위키백과, 마카롱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C%B9%B4%EB%A1%B1>)

22) En 1552, Rabelais l'évoque comme une « petite pâtisserie ronde aux amandes » dans le Quart livre. (<http://petitsgourmands.fr/macaronpage/macarons> 참조)

7) tarte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tarte : (n.f.)

a. Préparation faite d'une abaisse de pâte garnie d'un appareil salé ou sucré et cuite dans un moule.

b. Coup de poing, gifle.

- 문화적 현상

tarte라는 단어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둥근 빵’을 의미하는 라틴어 ‘torta, tarte, turta’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프랑스에서 tarte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보통은 tarte aux pommes처럼 과일을 첨가하여 맛있는 디저트로 내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통 프랑스 tarte는 위에 반죽을 덮지 않는다. 그 중에서 tarte tatin은 19세기 말에 카롤린과 스테파니라는 자매가 호텔을 운영하며 처음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해 호응을 얻어 1930년 말에 파리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맥심(Maxim)’에서 정식 메뉴로 선보이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오늘날 tarte tatin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로 제공될 만큼 프랑스의 대표 메뉴로 자리를 잡았다.

- 속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C'est pas de la tarte»라는 표현은 tarte를 만들 듯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힘들고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다. « Tarte à la crème»는 ‘실속 없이 잘난체 하는 말’ 혹은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나온 가치 없는 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두 가지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tarte는 만들기 어려운 디저트가 아니라 프랑스인들의 인식으로 인해 쉽고,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라는 은유로 사용되고 있다.

3. 주거와 관련된 단어

주거와 관련된 프랑스어 단어들 가운데 한국어에 차용되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담긴 단어로 7개의 단어 (boutique, buffet, cabaret, café, cinémathèque, restaurant, salon)를 선별하였다. 이 단어들을 알파벳순으로 프랑스 내부에

서 제시하는 정보들을 수집하여 분류해보았다.

1) boutique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boutique

- a. Local où se tient un commerce de détail, où exerce un artisan.
- b. Lieu de commerce en plein air
- c. Maison en général, lieu de travail, entreprise.

- 문화적 현상

boutique의 어원은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apotheca’에서 비롯되었다. 1242년에는 수공업자가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bouticle’의 형태로 쓰였다. 1564년 ‘botique’로 바뀌면서 ‘아틀리에, 장사하는 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다시 14세기 중엽 ‘boutique’로 바뀌었다. 이처럼 boutique는 ‘창고’라는 초기의 뜻에서 1767년부터 여러 종류의 소규모 가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차츰 ‘패션가게’를 지칭하는 용어로 변화했다.

- 속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Ouvrir, fermer, tenir boutique» 표현처럼 상점을 열고, 닫고, 운영한다는 일차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확장된 의미로 «faire marcher la boutique»에서 보듯이 사업을 하거나 무역회사를 경영한다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에도 boutique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être de la boutique»는 ‘능력이 있다’로, «parler boutique»는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 논하다’로, 직업이나 전문적인 영역의 의미로 새로운 영역이 첨가되었다. 한국어와 동일하게 ‘사업을 접다’는 의미로 «plier boutique»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한국과 프랑스인들이 사업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 buffet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buffet : (n.m.)

- a. Meuble généralement à deux corps superposés, dont l'un, celui du bas, plus profond, est réservé à la vaisselle, et l'autre, celui du haut, à la verrerie.
- b. Dans les restaurants, meuble à étagères sur lesquelles sont présentés différents plats dressés.
- c. Café-restaurant ou comptoir roulant installé dans une gare.
- d. Table garnie de mets sucrés et salés, et de boissons, pour une réception ; ensemble de ces mets et boissons.
- e. Estomac, ventre.
- f. Corps de menuiserie placé sur une tribune et renfermant le mécanisme et les tuyaux d'orgues.

- 문화적 현상

고대 프랑스어에서 buffet는 얼굴을 때리는 ‘한방’과 불을 지피는 도구를 뜻했다. 그러다 투구에서 뺨을 가리는 부분을 지칭하는 buffe, buffet, bouffet와 연관되었다. 12세기부터는 주방의 가구와 연관된 식탁이나 찬장으로 사용되었다. 바이킹에 의해 시작된 buffet는 음식을 다양하게 늘어놓고 취향대로 덜어서 먹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프랑스에서 buffet는 두 가지 영역으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상품 진열대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찬장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다가 은유적으로 그릇 자체로 쓰이기도 하고 식당에서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람이란 뜻으로 활용되었다. buffet는 기술적인 분야에서 ‘파이프 오르간 상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속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danser devant le buffet»처럼 buffet가 찬장이나 음식 진열대라는 의미로, 그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en avoir dans le buffet»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담하고, 배짱이 있다’는 의미로 무엇인가를 충분히 갖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enfonce le buffet à qn»처럼 buffet가 ‘배’의 의미로 ‘~를 공격하다’라는 영역까지 다양한 은유로 나타난다.

3) cabaret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cabaret : (n.m.)**

a. Débit de boissons, estaminet.

b. Établissement de spectacles dont les programmes comportent des tours de chant, des numéros et des revues.

c. Petite table à plateau creux ou coffret contenant un service à liqueurs.

- 문화적 현상

그리스어로 ‘작은 방’ 혹은 ‘음료를 대접하는 곳’이란 뜻의 ‘tavernier’에서 라틴어 ‘caupo’로 변화했다고 보고 있으나 기원은 확실하지 않다. cabaret는 포도주 창고나 선술집을 뜻하는 단어로 주로 장소를 지칭하던 단어였다. 그러다가 수준이 높은 업소를 지칭하는 단어로 의미가 확장되어 공연과 휴식을 취하는 업소를 지칭했다. 1881년 현대적인 cabaret가 탄생한 이후 예술가, 시인, 작가, 음악가, 연출자들, 한 시대를 이끄는 시대를 초월한 아티스트들과 도전적인 정신을 표방하는 지식인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cabaret는 특히 아방가르드를 자처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무대로 시대를 풍자하거나 도덕, 정치, 문화를 비판적으로 반영하는 풍자무대의 역할을 했다. 당대 최고의 cabaret는 버라이어티쇼를 선보이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고, 한편으로 공연의 내용을 통해 저항정신 등 시대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 속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사진 속 꽃의 명칭은 «cabaret des oiseaux»이다. 재미있는 것은 cabaret에서 공연하는 캥캥 춤의 의상처럼 꽃이 생겼다는 점이다. ‘산토끼 꽃’이란 명칭에 cabaret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프랑스인들의 생활 깊은 곳까지 cabaret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pilier de cabaret»는 cabaret에 죽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래서 술꾼, 주정뱅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4) café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café : (n.m.)**

- a. Graine ou fève du caféier.
- b. Ces graines torréfiées : Un paquet de café.
- c. Infusion préparée avec des fèves de caféier torréfiées et moulues.
- d. Établissement où l'on consomme des boissons.
- e. Moment où on prend le café, après un repas.

- 문화적 현상

café는 라틴어 ‘kaffa’에서 비롯되었다. 오랫동안 ‘caffè’라는 단어로 사용되다가 현재의 단어로 변형되었다. 초기에는 커피 열매를 지칭했지만 이후 음료로, 다시 커피를 마시는 장소나 시간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프랑스에서 café는 커피를 마시는 전형적인 장소인 한편 사회, 문화적인 사고 장소를 의미한다. 이곳에서 여러 예술가와 문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만남을 가졌다. 특히 문인들이 많이 모이던 café를 ‘café littéraire’라 지칭했는데 이후 café-concert, manga-café, coffee-shop, cybercafé 등으로 변형되었다. 현대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pause café»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

- 숙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café는 이곳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prendre son café»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즐기다’라는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졌다. 반면 «Racine passera comme le café»에서처럼 ‘커피를 마시듯 짧게 지나간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좋은 시절은 짧다, 성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격언도 생겨났다.

5) cinémathèque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cinémathèque : (n.f.)**

Lieu où l'on conserve et projette les films de cinéma.

- 문화적 현상

Cinémathèque의 기원은 19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앙리 랑글루아(Henri Langlois)와 조르주 프랑쥬(Georges Franju)가 35년에 ‘영화 클럽’(Cercle du Cinéma)을 설립하여 1년 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Cinémathèque Française)로 새롭게 선을 보였다. Cinémathèque는 고유명사에서 이후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일반명사가 되었다. 현재는 영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복원하는 일들을 한다. 현재는 영화 자료 보관소나 영화 박물관의 개념으로 극장 형태를 갖춰 고전 영화나 예술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여 신세대들에게 영화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 숙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cinémathèque와 연관된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cinéma와 관련된 표현은 존재한다. «arrêter de faire ton cinéma». 이 숙어의 뜻은 ‘거짓말 좀 그만해!’이다. 이는 영화에서 배우들이 진실한 행동보다 가식적인 연기를 하는데 영화 속의 상황처럼 진실 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6) restaurant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restaurant** : (n.m.)

- a. Établissement commercial où l'on sert des repas contre paiement.
- b. En apposition, indique qu'un lieu comporte un restaurant

- 문화적 현상

restaurant은 12세기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뜻의 ‘restaurer’에서 비롯되었다. 16세기에 restaurant은 ‘기운을 돋우는 음식’을 지칭했는데 17세기에 ‘회복시켜주는 고기수프’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18세기부터 식사를 파는 장소가 되었다. 중세 이후부터 프랑스에 식당 겸 여인숙과 선술집들이 생겨났

다. 그 가운데 폴리 거리에 ‘위장이 나쁜 사람들은 모두 오시오. 멋지게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린 식당에 사람들이 가서 영양 수프를 사먹곤 했다. 이후 restaurant은 요리사가 해주는 요리를 먹는 장소를 지칭하게 되었다. 고급 식당 문화는 프랑스 혁명 이후 귀족의 저택에서 나온 요리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건 restaurant을 열면서 싹트게 되었다. 아쉽게도 restaurant이란 말은 오늘날 단순한 ‘외식’의 의미로 퇴색되었다.

- 숙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restaurant과 관련된 숙어나 관용어는 없지만 «restaurant du cœur»처럼 특별한 문화 현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겨울 동안 불우한 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일컫는 용어이다.

7) salon

- 프랑스어 사전적 정의

* **salon** : (n.m.)

- a. Pièce d'un appartement, d'une maison, destinée à recevoir les visiteurs.
- b. Mobilier propre à cette pièce de réception.
- c. Pièce commune confortablement meublée où l'on peut s'asseoir, lire, conserver, dans un hô tel, sur un paquebot.
- d. Pièce 'un client peut réserver pour un repas, une réception, une fête etc.
- e. Réunion de personnalités des lettres, des arts et de la politique qui, en particulier aux XVIIe et XVIIIe siècle, se tenait chez une femme distinguée et où l'on discutait de littérature, de philosophie, de politique etc.
- f. Manifestation commerciale propossionnelle permettant périodiquement aux entreprises de présenter leurs nouveautés.
- g. Exposition, le plus souvent annuelle, d'artistes vivants.

- 문화적 현상

salon은 이탈리아어 ‘salone’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에서 salon은 역사의

산물이며 지성과 문화를 상징한다. salon 문화는 프랑스가 유럽대륙의 최강 대국으로 부상하며 경제적 풍요를 구가하던 17세기에 나타나 18세기에 꽃을 활짝 피운 지성적인 문화이다. 18세기 왕권이 쇠퇴함에 따라, 문학과와 철학자들은 궁정에서 빠져나왔고 그 결과 사회생활의 중심이 ‘salon’으로 옮겨졌다. 18세기 초엽까지만 해도 17세기의 전통을 받아 salon은 귀족적이고 의례적이었으나, 신사상이 보급됨에 따라 지성의 권위가 신분의 권위를 대치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번창으로 사회생활이 활발해지자 점차 새로운 집합소인 ‘중이층클럽’과 카페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문학자들은 자유로이 시사문제를 토론하고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처럼 salon에 새로운 사상이 파고들어 예술이나 도덕에 관한 문제보다는 과학, 정치, 사상에 관한 여러 문제가 중심 화제가 되었다. 프랑스의 salon은 단순히 귀족들이 끼리끼리 모여 사교를 하는 사교클럽이 아니었다. 젊은 지성과 기득권층이 만나 토론하고 답론을 만들어 내기도하고, 또 마담을 중심으로 지식인들이 모여 남녀 혹은 신분의 벽을 넘어 토론문화를 만들어 내던 문화적 공간이었다. salon은 지성의 산실이자 토론의 공간이었고, 사교의 장이면서도 남녀간, 계층 간 이해의 장이었다.²³⁾

- 숙어나 관용어 표현 속 특별한 문화현상

Salon과 연관된 관용어 표현은 다양하지 않다. «tenir salon»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위적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표현의 기원은 17세기인데 유럽에서 유행한 문학 살롱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이 표현은 행운이나 한량이 하는 행동을 비꼬는 의미로 경멸하듯 말할 때 사용된다.

23) 김선미·곽노경, 『프랑스 문화와 예술 그리고 프랑스어』, 서울: 신아사, 2012, 64-65쪽.

IV. 상호문화적 관점

1. 의복과 관련된 단어

앞에서 살펴본 프랑스 단어들이 한국어에서 어떤 사전적 정의를 지니며 차용과정 중 발생한 특별한 변용 양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사회 속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단어들을 비교하기 위해 한글 순서가 아닌 알파벳 순 배열을 따랐다. 프랑스어는 대부분 한국어로 차용될 때 통사적인 범위는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기표와 함께 기의가 선택적으로 차용된다는 특징이 있다.²⁴⁾ 외래어의 사용은 대부분 그 언어의 문화 영역을 동시에 수용하게 된다.

1) 베레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베레 : 명사

챙이 없고 둥글납작하게 생긴 모자. 털실로 짜거나 천으로 만든다.

- 차용어의 변용 양상

베레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모자인데 한국어에서는 베레라는 프랑스어 단어에 한자어 모(帽)가 결합되어 베레모로 통용된다. 베레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던 모양의 모자 형태를 지칭하는 단어로 필수적인 차용어로 보아야 한다. 사전에는 ‘베레’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인들은 ‘베레모’라는 용어를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

- 문화적 현상

한국에서 베레는 패션 분야와 군부대 문화를 대변하는 군용으로서의 베레로 나누어진다. 원래 베레모하면 특수부대의 상징이었지만 2011년부터 대한민국 육군도 2011년 신형 디지털 패턴 전투복 보급과 함께, 기존의 군

24) 전재연, op.cit, 2014, 64-65쪽.

무모/전투모를 폐지하고 흑록색 베레모를 근무모/전투모로 도입했다.

2) 코르사주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코르사주 : 명사**

- a. 여성들이 입는, 몸에 꼭 맞는 옷의 허리 부분.
- b. 장신구의 하나. 여성들의 옷깃, 가슴, 허리 등에 다는 꽃묶음을 이른다. ‘맷시꽃’으로 순화.

- 차용어의 변용 양상

이 경우는 프랑스어에서 다의어인 코르사주가 지닌 의미들 가운데 일부 분만이 한국어로 차용된 경우이다. 한국어에서는 프랑스어에서 역사를 반영하는 a.번의 의미보다 b.번의 의미를 취해 새로운 단어로 확장되어 가는 현상을 보인다.

- 문화적 현상

한국에서는 결혼식이나 특별한 날 가슴에 장식하는 꽃 장식을 ‘꽃사지’라 부른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프랑스어인 ‘코르사주(corsage)’에서 온 말이다. 프랑스어 코르사주는 영어로 넘어가면서 ‘코사주’로 불리게 되었다. 프랑스어 단어의 기본 의미에서 확장되어 여성이 가슴 등에 다는 꽃다발로 통용된다. 익숙하지 않은 ‘코사주’, ‘코르사주’ 대신 꽃묶음이라는 것에서 ‘꽃’을 연상하여 ‘꽃사주’나 ‘꽃사지’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3) 즈봉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즈봉 : 명사**

‘양복바지(양복의 아랫도리)’의 잘못.

- 차용어의 변용 양상

이 경우는 의미의 왜곡이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에서는 여성들이 속옷으로 입는 바지를 지칭하던 단어가 한국어에서는 남자들이

주로 착용하는 양복바지를 지칭하는 단어로 변화되었다. 바지가 존재하지 않던 일본에 바지가 도입되면서 이를 지칭할 단어를 찾다가 프랑스어의 ‘jupon’을 받아들여 일본식 발음인 ‘즈봉’으로 부르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즈봉, 스봉, 쓰봉’ 등으로 표현하는데, 잘못된 표현이며 순화되어야 할 단어로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 문화적 현상

‘즈봉’이라는 단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년이나 중년 층들만이 이해하는 단어이다. 젊은이들은 이 단어를 ‘벨트’로 이해했던 경우도 있을 정도로 단어의 사용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²⁵⁾

4) 란제리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란제리** : 명사

여성의 속옷. 주로 양장할 때 입는다.

- 차용어의 변용 양상

한국어에서 란제리는 프랑스어에서 사용되는 여러 의미 가운데 속옷이라는 하나의 정의만을 취한 경우이다. 프랑스어에서는 장소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오로지 여성의 속옷만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차용 어휘의 의미들 가운데 일부만을 수용한 의미의 축소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 문화적 현상

속옷으로만 간주되던 란제리가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차츰 밖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유명한 팝 가수인 마돈나가 ‘란제리 룩’을 선보인 이후로 란제리는 단순한 속옷의 범주를 벗어나 패션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 란제리 패션쇼가 열리고 란제리 파티가 열릴 정도로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와 란제리가 결합되어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며 란제리

25) <http://egloos.zum.com/THX1138/v/730834> 참조.

와 결합된 합성어의 탄생까지 예상하도록 해준다.

5) 망토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망토** : 명사

소매가 없이 어깨 위로 걸쳐 돌려 입도록 만든 외투. 남녀가 다 입으며, 손을 내놓는 아귀가 있다.

- 차용어의 변용 양상

한국어에는 따로 망토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단어가 없다. 망토는 프랑스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 즉 원어의 소리인 기표가 차용되고 기의인 의미는 좀 다르게 차용된 경우이다.

- 문화적 현상

한국어에서 망토의 이미지는 일종의 판초를 연상시킨다. 프랑스어에서 일반적으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착용하는 외투이지만 한국에서는 일시적인 유행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착용하지 않는 의상이다. 그래서 외투의 이미지 보다는 왕이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옷 위에 걸치는 의상으로 생각을 하거나 만화 캐릭터들이 스스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착용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현대에 와서 외투로서의 망토는 거의 사라졌으며 대개 여성용 패션 아이템의 일종으로 남아 있거나, 종교 성직자나 상류층 귀족 등 일각에서 의례행사용으로 계속 쓰이고 있다. 유니섹스의 영향으로 일부 남성패션에 가끔 등장하기도 한다.

6) 팬탈롱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팬탈롱** : 명사

아랫부분이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 여자용 바지

- 차용어의 변용 양상

프랑스어에서 pantalon은 남·녀 모두가 착용하는 바지를 지칭한 반면

한국어에 차용된 판탈롱은 아랫단이 나팔모양인 여성바지만을 지칭한다. 판탈롱은 1970년대 한국에 등장하여 패션의 한 획을 그으며 유행을 선도한다. 70년대는 패션에서 특히 바지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등장한 프랑스 패션의 한 분야인 판탈롱은 패션을 주도하던 여성들이 착용하기 시작하다가 차츰 유니섹스의 성향을 보이며 패션에 관심을 나타내는 남성들까지 끌어들인다. 하지만 일명 나팔바지를 주로 착용한 대상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차용된 판탈롱이라는 단어는 사전의 정의에서처럼 여성용 바지로 그 의미가 전문적이고 특별한 분야에 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탈롱의 경우는 기표와 함께 기의가 온전히 차용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차용되었다.

- 문화적 현상

차용어 판탈롱은 언어적 영역뿐 아니라 문화적 영역을 동시에 수용하였다. 한국에서 나팔바지라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를 차용한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수여언어국가인 프랑스의 문화, 특히 패션에 대한 동경으로 인해 그 국가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려는 문화적 욕구 때문이다. 둘째는 실용적 동기로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는 직업적인 필요성과 실용성으로 인해 나팔바지보다 판탈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패션 이미지에 일치할 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이국적 이미지를 높이고 품질의 우수성을 드러낸다고 여겨 이들을 중심으로 사용하던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팔바지를 지칭하던 판탈롱은 차용 이후 한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의미의 변형이 일어난다. 바로 판탈롱 스타킹이라는 단어의 탄생이다. 디자이너 노라노(본명 노명자)에 의해 이러한 용어가 탄생했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이후 1965년 반달표 스타킹에서 스타킹 산업을 일으키며 1971년 광고에 ‘착침 스타킹, 팬티/판탈롱 스타킹’이라는 용어가 등장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이미지가 굳어졌다. 프랑스에서는 바지만을 지칭하던 판탈롱은 한국에서 바지를 입을 때 간편하게 신을 수 있는 짧은 길이의 스타킹이라는 의미로 의미의 변화(왜곡)가 일어난다. 이처럼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프랑스어로 차용된 판탈롱이 한국의 패션 제품과 연관됨으로써 또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7) 트리코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트리코 : 명사**

<수공> 트리코 편직기로 편성한 천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차용어의 변용 양상

프랑스어에서 트리코는 다의어였는데 한국어로 수용되면서 천과 관련된 경우에만 사용되어 의미의 축소가 일어났다.

- 문화적 현상

트리코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로 여겨진다. 직물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트리코와 관련된 단어는 전문적인 용어로 트리코-직, 트리코 편성물, 트리코 편직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2. 음식과 관련된 단어

프랑스어에서 살펴본 단어들이 동시에 한국어에서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는 바게트, 카페오레, 카나페, 샴페인, 그라탱, 마카롱, 타르트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1) 바게트

- 사전적 의미 및 차용어 분류

* **바게트 : 명사**

막대기 모양의 기다란 프랑스빵. 겉껍질이 단단하여 씹으면 파삭파삭 소리가 난다.

- 차용어의 변용 양상

한국에서는 바게트라는 단어보다 바게트 빵으로 통용된다. 제과점의 특정 빵을 지칭하는 단어로 순수하게 차용된 바게트는 프랑스어에서 ‘막대기’의 의미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전형적인 의미 축소형 차용어이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게트 빵집’, ‘마늘 바게트’ 등 그 단어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프랑스 빵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상업적 동기로 새로운 제품에 프랑스의 이미지를 담아 사용했던 바게트는 이에 문화적 동기까지 결부되어 프랑스의 이미지뿐 아니라 프랑스를 상징하는 바게트를 먹으면서 프랑스 문화 속으로 스며드는 분위기까지 연출하는 역할을 한다.

- 문화적 현상

바게트는 한국에서 ‘파리 바게트’라는 상호명과 더불어 프랑스빵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빵들이 수입됨에 따라 전문적인 용어의 필요성으로 인해 바게트라는 특정 빵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2) 카페오레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카페오레: 명사

진한 커피와 따뜻한 우유를 비슷한 양으로 섞어 만든 차.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아침에 즐겨 마신다.

- 차용어의 변용 양상

이 단어는 순수 차용에 해당한다. 프랑스어에서의 의미가 한국어에서도 완전히 동일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커피와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이며 전문적인 언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 문화적 영역

커피 문화가 한국에 상륙하기 시작하면서 카페오레도 한국의 카페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커피 문화가 다양한 커피를 취향에 따라 즐기면서 담론을 나누듯이 한국도 비슷한 문화 현상들이 생겨났다. 특히 카페오레는 커피의 쓴 맛보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즐기는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아 초기에는 대부분의 카페에서 카페오레라는 명칭으로 일명 ‘커피 우유’를 판매하곤 했다. 그러나 카페오레의 커피가 엑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었다는 것 때문인지 서서히 카페오레라는 명칭보다 카페라테라는 명칭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동일한 외래어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한 단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현상은 한국인의 발음이나 의식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흥미로운 현상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 카나페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카나페** : 명사

얇고 잘게 썬 빵이나 크래커 위에 야채, 고기, 생선, 달걀 따위를 얹어 만든 서양 요리.

- 차용어의 변용 양상

프랑스어에서 크게 가구와 음식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카나페는 한국어에서 가구의 의미는 사라지고 음식의 의미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의미의 축소가 일어났다.

- 문화적 현상

카나페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전체 요리로 음료 문화와 파티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가 한국에 등장하였다. 이 요리는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가 아니지만 초등학교생들도 만들기가 수월해서 프랑스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교육용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카나페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다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4) 샴페인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샴페인** : 명사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백포도주.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 처음 만든 술로, 거품이 많고 상쾌한 맛이 난다.

- 차용어의 변용 양상

샴페인은 원래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샹파뉴이다. 이 단어는 실용적인 동기로 음주와 관련된 전문 용어가 그대로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어에서 지닌 단어의 뜻 그대로 순수하게 차용된 단어이다. 하지만 기표에 있어서는 프랑스식 발음이 아닌 영어식 발음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통해 문화가 유입되어 영어식 발음에 익숙해진 대중들이 많아 영어식 발음으로 보편화된 듯하다.

- 문화적 현상

샴페인은 ‘샴페인을 터뜨리다’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면서 파티나 축하 현장에 늘 등장하는 음료로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고급 와인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 샴페인은 여전히 고급 와인의 위치를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와인 애호가들이 증가하고 스파클링 와인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샴페인사이다’라는 합성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샴페인은 단어 사용에서도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5) 그라탱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그라탱** : 명사

조미한 소스로 무친 고기와 야채 따위에 치즈와 빵가루를 뿌린 다음 오븐에서 겉이 누릇누릇하게 구워낸 요리.

- 차용어의 변용 양상

그라탱 역시 샴페인과 마찬가지로 실용적인 동기로 인해 프랑스 고유의 요리를 지칭하는 단어로 유입되어 사용된 순수차용의 경우이다.

- 문화적 현상

그라탱은 이제 특별한 프랑스 요리가 아닌 퓨전화된 한국 요리로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순두부 그라탱’, ‘팔도 비빔면 그라탱’ 등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면 퓨전화 된 그라탱의 조리법이 수없이 많이 등장한다. 한국에서 그라탱은 보통 한국 음식에 치즈를 뿌린 후 오븐에 굽거나 익혀서

살짝 녹아내린 치즈와 함께 한국 고유의 맛을 즐기도록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그라탱’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치즈 떡볶이 그라탱’과 같은 경우이다. 그라탱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치즈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며 새로운 요리 명칭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6) 마카롱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마카롱** : 명사

아몬드나 코코넛, 밀가루, 달걀 흰자위, 설탕 따위를 넣어 만든 고급 과자.

- 차용어의 변용 양상

마카롱은 프랑스 외식 문화의 유입으로 최근에 등장한 단어이다. 마카롱도 프랑스 전통의 디저트로서 프랑스어에서는 그 문화와 연관되어 다양한 의미가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디저트 요리를 지칭하는 단어로 순수하게 차용된 경우이다. 하지만 다양한 프랑스어 의미를 모두 받아들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의 축소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 문화적 현상

한국의 대중매체에서 각 나라의 대표적인 디저트 음식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늘어남에 따라 프랑스의 마카롱도 점차 대중에게 익숙한 디저트 음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카롱은 각종 케이크와 함께 맛 좋은 고급 과자의 대명사가 될 정도이며 단 것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단골 디저트이기도 하다.²⁶⁾

7) 타르트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타르트** : 명사

26) 마카롱이 대중매체에서 언급되거나 주제가 된 경우를 모아놓았다. 이처럼 마카롱은 고급 디저트의 이미지를 벗어나 대중화되어가고 있다.

(<https://namu.wiki/w/%EB%A7%88%EC%B9%B4%EB%A1%B1> 참조)

파이의 하나. 주로 밀가루로 된 반죽을 접시에 얇게 펴서 구운 다음, 달콤하게 썬 과일이나 날 과일을 그 위에 얹거나 사이에 넣는다.

- 차용어의 변용 양상

타르트는 프랑스 디저트가 유입되면서 수용된 전문 용어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타르트의 의미 속에는 ‘주먹질’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단순한 파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의미의 축소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 문화적 현상

한국인들에게 타르트는 이제 프랑스의 디저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디저트 가운데 파이 모양을 한 디저트들의 명칭이 ‘타르트’이기 때문에 타르트는 프랑스를 떠올리기 보다는 홍콩, 포르투갈, 미국 등 다양한 국가를 떠올리는 대중이 늘어나고 있다. 타르트가 프랑스 내에서는 ‘공유문화 적재어’로 그들이 지닌 고유한 문화를 담고 있는 단어였다면 한국에서 타르트는 서양과 동양을 넘나들며 타르트를 소재로 개발된 각국의 디저트를 의미한다.

3. 주거와 관련된 단어

Ⅲ단원에서 살펴본 주거와 관련된 프랑스 ‘공유문화 적재어’들의 한국어 차용 양상과 문화 현상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1) 부티크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부티크** : 명사

멋있고 개성적인 의류나 액세서리 따위를 취급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가게.

- 차용어의 변용 양상

부티크는 전문적인 용어를 차용한 순수차용인 동시에 프랑스어의 세 가

지 의미 가운데 한 가지만을 취한 의미 축소형이다. 프랑스어 부티크의 의미 중 회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c. 항목에 대해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를 결합하여 ‘부티크 매장’이라고 부른다.

- 문화적 현상

원래는 ‘작은 점포, 소매점’ 등을 의미하지만 복식 분야에서는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멋있고 개성적인 의류를 취급하는 점포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부티크의 형태가 다양해져 빅 부티크(big boutique), 렌탈 부티크(rental boutique), 패스트 부티크(fast boutique)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부티크가 나타났다. 빅 부티크는 부티크 이미지를 지닌 대형 전문점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 서비스의 강조 등 부티크의 느낌을 독특하게 재구성한 전문점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렌탈 부티크는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의상을 대여하는 부티크로 파티 웨어, 발표회용 드레스에서부터 평상복까지 다양한 상품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패스트 부티크는 맥도널드 등의 즉석 간이음식점(fast-food shop)의 패션 판으로 나타난 개성적인 패션 전문점이다. 소규모로 연령, 성별 제한 없이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유행의 고감도, 저가격을 바탕으로 한 점포라고 할 수 있다.

요즘 한국에서는 ‘러브 호텔’ 대신 ‘부티크 호텔’이라는 명칭으로 부티크라는 단어가 이제 패션 분야만이 아닌 호텔 쪽으로 그 의미가 새롭게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뷔페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뷔페: 명사

- a. 여러 가지 음식을 큰 식탁에 차려 놓고 손님이 스스로 선택하여 덜어 먹도록 한 식당.
- b. 열차나 정거장 안에 있는 간이식당.

- 차용어의 변용 양상

프랑스어에서 buffet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한국어에서 뷔페는 두

가지 의미로만 수용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뷔페는 순수차용인 동시에 의미의 축소를 동반한 차용어이다.

- 문화적 현상

한국에서 뷔페라는 단어는 식당의 이미지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채려 놓은 것’에 해당하는 듯하다. 흔히들 ‘뷔페 먹으러 가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때 뷔페는 식당의 이미지보다 음식이 푸짐히 차려져 있는 상황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뷔페라는 단어 하나로 식당을 표현하기보다 뒤에 다시 식당을 덧붙여 ‘뷔페식당’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인이 뷔페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외식 전문가들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식탐을 들고 있다. 뷔페는 한국인들에게 최적화된 식사 형태이다. 하나를 깊게 파기보다는 여러 종류를 넓게 즐기는 성향이 있어 뷔페가 가장 적합한 식사 형태라는 견해이다.

3) 카바레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카바레 : 명사

무대, 무도장 따위의 설비를 갖춘 서양식의 고급 술집.

- 차용어의 변용 양상

프랑스어에서 카바레는 다의어에 해당했지만 한국어에서는 서양식 고급 술집이라는 정의로 사용된다. 카바레는 프랑스어 단어가 의미의 측면에서 프랑스어에는 없던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하는 의미적 왜곡 현상이 일어난 경우이다.

- 문화적 현상

한국에서 카바레라는 단어는 고급 술집이기도 하지만 성인 나이트클럽을 지칭하는 다른 명칭으로 사용된다. 프랑스에서 카바레는 공연이 주를 이루던 공간이었으나 한국에서의 카바레는 퇴폐적인 유흥업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간으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차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20여개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카바레라는 단어도 차츰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4) 카페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카페** : 명사

- 차용어의 변용 양상

프랑스어에서 공간과 관련된 정의에 대한 순수 차용이 한국어에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한국어에서의 의미가 프랑스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현대로 올수록 카페의 활용과 의미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사주카페, 인터넷카페, 다음카페’ 등등 카페는 일상적으로 상용되는 차용어가 되었다.

- 문화적 현상

한국에도 프랑스의 카페처럼 커피를 파는 커피숍, 다방, 찻집이라는 명칭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라는 단어가 차용되면서 기존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던 단어들이 거의 사라져갔다. 카페라는 단어가 다른 명칭보다 훨씬 더 럭셔리하고 분위기 있게 들리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카페가 간단한 디저트와 음료를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대중적인 사교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에서 카페는 이제 프랑스인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 장소로 바뀌어가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5) 시네마테크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시네마테크** : 명사

영화 관련 자료실 또는 실험 영화 극장. 1936년 랑글루아(Langlois, H.)와 프랑쥐(Franju, G.)가 프랑스 파리에 설립한 세계 최대의 영화 자료실의 명칭에서 유래된 말이다.

- 차용어의 변용 양상

시네마테크는 전문용어로 차용된 경우이며 현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순수차용 단어이다.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관계로 의미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단어이며 필수적인 차용어에 해당한다.

- 문화 현상

시네마테크는 일반화되지 않아서 대중에게는 생소한 단어이다. 최근 영화 축제가 열리는 부산을 중심으로 시네마테크와 관련된 상호(시네마테크 부산)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단어가 일반화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6) 살롱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살롱** : 명사

- a. 유럽, 특히 프랑스의 상류사회 저택에서 부인이 주최하던 사교적 모임.
- b. 미술 전람회 혹은 전람실
- c. 다방, 미장원, 바, 카바레 따위의 이름으로 흔히 쓰이는 말.

- 차용어의 변용 양상

살롱은 한국에서 다른 단어보다 훨씬 많은 의미적 변형이 이루어진 단어이다. 특히 의미적인 측면에서 왜곡이 일어나서 사교적인 모임의 차원을 넘어 퇴폐적인 유흥업소를 지칭하는 단어로 발전되는 의미적 왜곡을 볼 수 있다.

- 문화적 현상

프랑스에서 ‘살롱’은 백과사전과가 배출될 정도로 철학, 정치, 문학을 논하던 장소였던 반면 한국에서는 내용이 상실된 채 외형적인 부분들만이 유입되어 퇴폐성이 부각된 장소로 간주된다. 심지어 영어와 합성된 ‘룸살롱’이 등장하여 밀폐된 공간 속의 퇴폐적인 문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살롱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에서 사교나 미용과 관련된 다양한 업소의 이름으로 사용된다.

7) 레스토랑

- 한국어 사전적 정의

* **레스토랑** : 명사

서양식 음식점. ‘식당’, ‘양식당’으로 순화.

- 차용어의 변용 양상

레스토랑은 한국어에 식당이라는 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해주기 위해 사용한 부가적 차용어에 해당한다. 현재도 식당과 레스토랑은 경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레스토랑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갖고 있는 의미 중 한 가지만을 나타내는 의미 축소가 일어난 경우이다.

- 문화적 현상

음식점, 식당 등 한국에 이미 존재하는 단어와 어깨를 같이하며 사용되고 있는 레스토랑은 한국에서 의미가 축소되어 스테이크 하우스나 뷔페 같이 격식 있는 서양 음식점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서양 요리가 주 메뉴를 이룬다. 반세기 이전에는 양식을 취급하는 곳을 레스토랑이라기보다는 그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현재는 ‘한식 레스토랑’이라는 명칭이 생길 정도로 레스토랑이 차츰 ‘음식점’이라는 단어를 대체해가고 있다.

V. 나가며

지금까지 프랑스 ‘공유문화 적재어’들 속에 담긴 다양한 문화의 단면들과 동일한 단어가 한국어로 유입되면서 기표는 비슷하지만 다른 기의로 거듭나는 과정들을 의·식·주에 해당하는 대표 단어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 단어들을 통해 살펴본 문화 현상들 속에서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가치관과 문화관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우선, 프랑스 ‘공유문화 적재어’들은 단순한 사전적 정의를 벗어나 단어의 사용빈도와 대중화에 따라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담아 폭 넓은 활용을

드러내며 의미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개별 단어들에 대한 탐구가 프랑스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하고 이들 단어가 사용된 속어나 관용어 표현들을 통해 개별 단어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 현상들이 담화 속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로 차용된 프랑스 ‘공유 문화 적재어’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차용되었으며 시네마테크처럼 전문적인 용어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미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 왜곡되어 사용된 경우에 다른 명사들과 합성되어 새로운 분야로 의미가 확장되는 경향이 강했다.

동일한 한 단어의 긴 여정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에 기초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 학생들이 배우는 목표언어가 한국어와 동떨어진 언어가 아니며 언어 속에는 공통적으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목표어인 프랑스어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는 단어가 단순히 해석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그 속에 무한한 역사와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야기보따리’임을 인식함으로써 향후 프랑스인들과의 대화에서 풍부한 문화적 지식을 교류할 수 있다. 셋째로 연구한 자료들을 토대로 교재를 개발한다면 프랑스어 논리 및 논술과 같은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두 문화의 차이를 서로 토론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다. 이를 통해 두 문화 간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로 한 단어의 변화 과정은 동일한 사물을 바라보는 두 관점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인지언어학 분야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단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풍부한 자료로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키고 교재를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프랑스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 편 2 : 노무현 시대의 명암』,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3.
- 곽노경, 「바지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프랑스 여성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제46집, 2014.
- _____, 「프랑스어 관용어 표현 속에 담긴 언어·문화 연구 및 수업에 서의 활용 방안」, 프랑스어문교육, 제51집, 2015.
- 김경희, 「한국어의 프랑스어 차용에 관한 고찰」, 불어불문학연구, 제64집, 2005.
- 김선미·곽노경, 『프랑스 문화와 예술 그리고 프랑스어』, 서울: 신아사, 2012.
- 김은정, 「프랑스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 어휘 개념정립과 유형분석」, 프랑스어문교육, 제41집, 2012.
- 심봉섭, 「어휘를 통한 프랑스 문화 교육」, 외국어교육연구 제2집, 12월, 1999.
- 장한업, 「외래어 ‘마담’의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26집, pp.29-45, 2007.
- 전재연, 「한국어에 차용된 프랑스어 어휘의 분류와 사용 양상에 대하여」, 프랑스학연구, 제67집, pp.153-197, 2014.
- Abdallah-Preteille, *L'éducation interculturelle*,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장한업역, 서울: 한울, 1999.
- Bard, C. *Une histoire politique du pantalon*, Paris: Le Seuil, 2010.
- Claes, M.-T., “La dimension interculturelle dans l’enseignement du français langue de spécialité” *Dialogues et cultures*, n°47. 2003.
(http://francparler-oif.org/FP/articles/interculturel_claes.htm)
- Galisson, R., “Accéder à la culture partagée par l’entremises des mots à C.C.P”.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n°67, 1987.
- _____, “Culture et lexiculture partagées: les mots comme lieux

- d'observation des faits culturels”,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n°69, 1988.
- _____, “La culture partagée: une monnaie d'échange interculturelle”, *Le Français dans le Monde, Recherches et Applications*, n°spécial août-septembre, 1989.
- _____, “Enseignement et apprentissage des langues et des cultures «évolution» ou «révolution» pour demain?”,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n°79, 1990.
- _____, *De la langue à la culture par les mots*, Paris: CLE international, 1991.
- _____, “Où il est question de lexiculture de cheval de troie, et d'impressionisme”,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n°97, 1995.
- _____, “La pragmatique lexiculturelle pour accéder autrement, à une autre culture par un autre lexique”.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n°116, 1999.
- _____, “Didactologie: de l'éducation aux langues-cultures à l'éducation par les langues-cultures”,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n°128, 2002.
- Galisson, R., “Les ressorts d'un développement durable de la recherche en matière d'éducation aux et par les langues-cultures(contexte français)”,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et de lexicultureologie*, n°155, 2009.
- Gentilhomme, Y., “À quoi servent les concepts en Didactique des langues-cultures”,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1997.
- González Rey, M. I., “Quels rapports entre grammaire des constructions et phraséologie en didactique des langues vivantes?”, *Cahiers de lexicologie: Revue internationale de lexicologie et lexicographie*, 2016.
- Guillén Díaz, C., “Une exploration du concept «lexiculture» au sein de la

Didactique des Langues-Cultures”, *Didactica*, v. 15, 2003.

<http://revistas.ucm.es/index.php/DIDA/article/viewFile/DIDA0303110105A/19413> 참조

Pruvost, J., “Quelques concepts lexicographiques opératoires à promouvoir au seuil du XXIe siècle”.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n° 137, 2005.

Silva et Silva, M., “Le lexicoculturologie... en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Synergies Portugal*, n°1, 2013.

〈참고 사이트〉

• 사전

- Larousse 인터넷 사전: <http://www.larousse.fr/dictionnaires/francais>
- 네이버 국어사전: <http://dic.naver.com/>
- 다음 국어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kor>
- <http://www.linternaute.com/expression/langue-francaise>

• 단어별 참조 사이트

- béret
<https://fr.wikipedia.org/wiki/B%C3%A9ret>
<http://apprendre.tv5monde.com/ko/apprendre-francais/lhistoire-du-beret-0>
<http://apprendre.tv5monde.com/ko/apprendre-francais/lhistoire-du-beret-0>
<https://namu.moe/w/%EB%B2%A0%EB%A0%88%EB%AA%A8>
- corsage
<http://conseilsenjardinage.advicebase.net/20140123022429.html>
https://fr.wikisource.org/wiki/Le_Corset_%C3%A0_travers_les_%C3%A2ges/Histoire_du_corset_en_France
<http://www.le-tresor-de-la-langue.fr/definition/corsage>
http://korean.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07610&ctg=
- jupon
<http://www.cnrtl.fr/definition/academie8/jupon>
<http://www.instantprecieux.fr/histoire-jupon-mariee>

<http://www.cnrtl.fr/definition/academie8/jupon>

<http://www.instantprecieux.fr/histoire-jupon-mariee>

<http://egloos.zum.com/THX1138/v/730834>

<http://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3>

- lingerie

<http://www.instantprecieux.fr/histoire-lingerie>

<http://www.psychologies.com/Beaute/Style/Articles-et-Dossiers/Lingerie-petite-histoire-de-dessous>

- manteau

<https://1001origines.net/origine/sens-de-manteau.html>

P.M.Quitard, Dictionnaire étymologique, historique et anecdotique des proverbes et des

locutions proverbiales de la langue française, 1842, Paris, P.Bertrand Libraire-Editeur p.52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055&cid=42822&categoryId=42822>

<https://namu.wiki/w/%EB%A7%9D%ED%86%A0>

- café au lait

http://www.revues-plurielles.org/_uploads/pdf/9_10_23.pdf

<http://www.notrefamille.com/dictionnaire/definition/cafe/#zoLkUw5hW1KsbWL0.99>

<http://www.expressio.fr/expressions/c-est-fort-de-cafe.php>

- canapé

<https://fr.wikipedia.org/wiki/Canap%C3%A9>

<http://www.le-tresor-de-la-langue.fr/definition/canape>

<http://www.cnrtl.fr/etymologie/canap%C3%A9>

- champagne

<http://www.expressio.fr/expressions/sabler-sabrer-le-champagne.php>

http://www.routard.com/guide/champagne_ardenne/1909/culture_et_traditions.htm#ixzz4oD9EdVm1

- gratin

<https://www.legratindauphinois.fr/histoire-du-gratin-dauphinois/>

https://fr.wikipedia.org/wiki/Gratin_dauphinois

<http://www.tv5monde.com/cms/chaine-francophone/lf/Merci-Professeur/p-17081-Gratin.htm?episode=12>

www.youlchon.org/download/?flag=RESE_BOARD&fn=장한업.pdf&idx...

- macaron

<https://fr.wikipedia.org/wiki/Macaron>

<http://www.le-tresor-de-la-langue.fr/definition/macaron#top>

<https://namu.wiki/w/%EB%A7%88%EC%B9%B4%EB%A1%B1>

- tarte

<http://www.le-tresor-de-la-langue.fr/definition/tarte#top>

https://fr.wikipedia.org/wiki/Tarte_Tatin

- boutique

<https://fr.wiktionary.org/wiki/boutique>

<http://www.le-tresor-de-la-langue.fr/definition/boutique#top>

<http://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9>

- buffet

<https://fr.wiktionary.org/wiki/buffet>

<http://www.le-tresor-de-la-langue.fr/definition/buffet#top>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30/2016083001787.html

- café

<http://www.le-tresor-de-la-langue.fr/definition/cafe#top>

- cinémathèque

<http://www.le-tresor-de-la-langue.fr/definition/cinematheque#top>

<https://ko.wikipedia.org/>

- cabaret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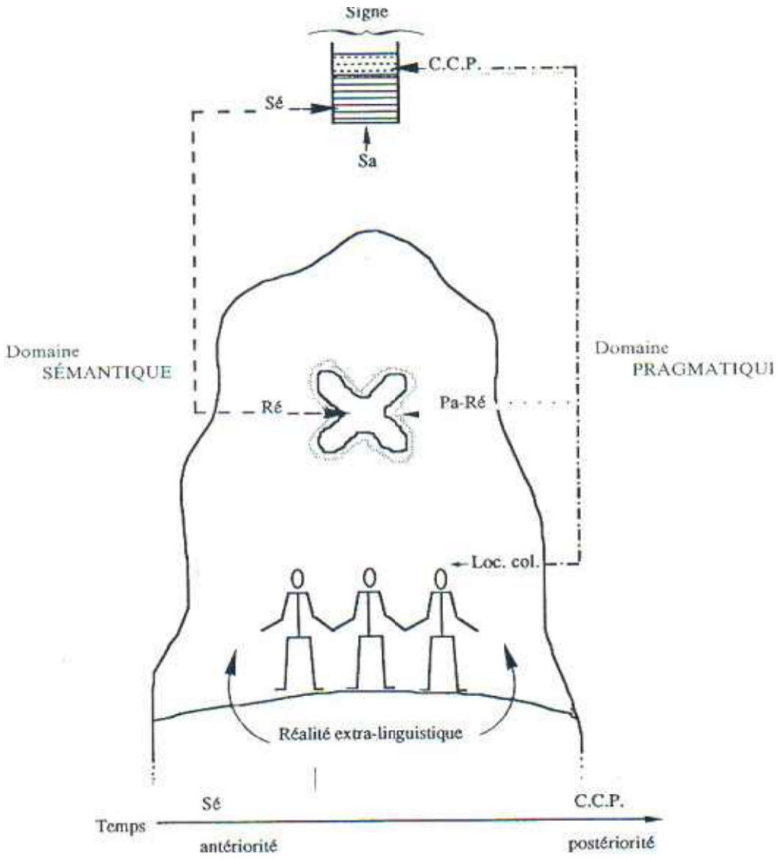
- restaurant

<http://www.britannica.co.kr/sam/20030201/cul26.htm>

<http://www.le-tresor-de-la-langue.fr/definition/restaurant#top>

별첨

1. Galisson의 공유문화 적재어 도표



2. 의 · 식 · 주와 관련된 프랑스어 차용어 자료

의	식	주
1. 란제리lingerie	1. 그라탱gratin	1. 레스토랑restaurant
2. 린넨(린네르)liné	2. 누가nougat	2. 살롱salon
3. 마틀라세matelassé (누빈천)	3. 마카롱macaron	- 룸살롱
4. 망토manteau,	4. 바게트baguette	3. 샬레 chalet
5. 모슬린mouseline	5. 부야베스Bouilabqisse	4. 시네마테크 cinémathèque
6. 베레berret	6. 부페buffet	5. 안티크antique
7. 블루종blouson	7. 블랑망제blanc-manger	6. 카바레cabaret
8. 사보sabot	8. 비프텍bifteck	7. 카페café
9. 잘로페트 salopette 멜빵바지	9. 샤바랭savarin	- 노천 카페
10. 샤프chapeau	10. 샬모트chamotte 고운가루	8. 테아트르théâtre
11. 샤프롱chaperon	11. 샬토브리앙 chateaubriand	9. 뷔페buffet - 뷔페식당
12. 슈미즈chemise	12. 샴페인champagne	10. 엘리제궁정Elysée
13. 즈봉jupon	13. 시드르cidre	11. 카페테라스 café terrace
14. 질레gilet	14. 아페리티프apéritif 식전주	12. 부티크boutique
15. 코르사주corsage	15. 에스카르고escargot	
16. 트리코tricot 편물	16. 카나페canapé	
17. 팬탈롱pantalon 나팔바지	17. 카페오레café au lait	
18. 크로세crochet 코바늘뜨기	18. 코냑cognac	
19. 크레프드신 crêpe de Chine	19. 트리프truffe	
	20. 파르페parfait	
	21. 코키유conquille	
	22. 콩소메consommé	
	23. 타르트tarte	
	24. 타르트레트 tartelette	
	25. 퓨레 purée	
	26. 피망piment	

❖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e of the French Language

Kwak, No-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words with “shared cultural charge” that are unique in French culture and to study cultural content hidden in these words. It also explores the cultural phenomenon of same French borrowed words used in the Korean language.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two perspectives: perspective of internal French culture defined by Galisson and inter-cultural perspective. The first section of this study introduces the theory “lexiculture” and definition of the words “shared cultural charge.” In the following section, among main items of 795 borrowed words in the Korean language, we examined seven words in areas such as clothing, food, and housing. We studied content of the French cultu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1) dictionary definition, (2) cultural phenomena, (3) special phenomenon in idiomatic expression. Our study illustrated a special connotation beyond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words. In the next section, we examined the birth of a new cultural phenomenon and process of acquiring a new meaning in the Korean language. Finally, we analyzed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linguistic and cultural elements in both cultures. In this study, we provide basic data for inter-cultural education between France and Korea.

Key Words : lexiculturologie, words shared cultural charge, lexicultural approach, inter-cultural approach, borrowed words

■ 논문접수일 : 2017. 8. 10

■ 심사완료일 : 2017. 8. 31

■ 게재확정일 : 2017. 9. 1

